


| | | | |
|---|---|-----|----------|
|  | 베트남(하노이)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| 작성팀 | 마케팅지원팀 |
| | | 담당자 | 정길기 소장 |
| | | 일시 | 2023.11. |

CEPA Insight

- 베트남 국회, 베트남 정부에 2024년 목표 GDP 성장률 6-6.5% 지시
- 애플 협력사 렉스웨어, 베트남 북부 박장성에 3.3억 달러 투자, 공장 증설
- 최근 베트남 시장 수입과일 판매가격의 급락

< 2023년 10월 기준 對 베트남 교역현황 >

| 구분 | 수출액 |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| 수입액 |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| 무역수지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전국 | 4,883,906천불 | -2.5% | 2,265,352천불 | 7.3% | 2,568,554천불 |
| 충남 | 1,575,057천불 | -21.8% | 60,989천불 | 26.8% | 1,514,068천불 |

※ 출처: 한국무역통계(<http://stat.kita.net/>)

■ 베트남 국회, 베트남 정부에 2024년 목표 GDP 성장률 6-6.5% 지시

- 베트남 국회가 베트남 정부에 지시한 2024년 목표 GDP 성장률은 6~6.5%,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~4.5%, 1인당 평균 GDP는 약 4,700~4,730 USD인 것으로 알려짐
- 지난 2023년 9월 11일, 약 90.5%의 베트남 국회 대표의 참석을 얻어 베트남 사회경제 발전에 관한 의결안이 통과
-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된 기준인 2024년 목표 GDP 성장률은 6~6.5%은 지난 2023년의 GDP 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이지만, 2023년의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몇몇 국가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, 전쟁 등의 지정학적인 충돌로 인해 2023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%를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

| 지표 | 2024년 목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제성장률 | 6~6.5% |
| 1인당 평균GDP | 4,700~4,730 달러 |
| GDP 대비 제조 및 가공업 비율 | 24.1%~24.2% |
| 소비자물가지수(CPI) | 4~4.5% |
| 노동생산성 증가율 | 4.8~5.3% |
| 총 노동 중 농업노동 비중 | 26.50% |
| 도시 실업률 | 4% 미만 |
| 빈곤 감소율 | 1% 초과 |
| 인구 1만명당 의사수 | 13.5 명 |
| 인구 1만명당 병상수 | 32.5 병상 |
| 고속련노동자 비율 | 69%(학위, 자격증 소유자 비율 28~28.5%) |
| 건강보험 가입율 | 94.10% |
| 신 농촌 기준 충족 비율 | 80% |
| 도시 고형폐기물 수거,처리 비율 | 95% |
|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폐수처리시스템 보유한 산업, 수출공업단지 비율 | 92% |

- 2024년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목표의 수치를 정하는 데에 내년 경제 상황에는 위험이 여전하고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목표 경제 성장률을 5~6% 수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짐
- 이와 관련 부 홍 탄(Vu Hong Thanh) 국회 경제위원장은 2024년 목표 경제성장률은 기존에 수립된 베트남 사회경제 발전 관련 마스터플랜 내 목표 및 최근 경제 요소 중 긍정적·부정적 요인을 모두 고려 하여, 6~6.5% 수준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힘
- 한편, 부 홍 탄 국회 경제위원장은 “2024년 목표 경제성장률 6~6.5%는 지속적인 경제 회복 및 견고한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”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베트남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

관련기사 링크:

<https://vnexpress.net/quoc-hoi-giao-chinh-phu-muc-tieu-gdp-nam-2024-tang-6-6-5-4674850.html>

<https://tuoitre.vn/quoc-hoi-giao-chi-tieu-tang-truong-gdp-nam-2024-la-6-6-5-20231109141828275.htm>

■ 애플 협력사 럭스웨어, 박장성에 3.3억 달러 투자, 공장 증설

- 애플 주요 협력업체중 하나인 중국 럭스웨어ICT(Luxshare ICT)가 북부 박장성(Bac Giang) 공장 증설에 3억3000만달러규모의 추가투자를 단행
- 박장성은 중국 최대의 태양광기업 JA솔라, 애플의 협력사 폭스콘 등을 비롯해 다수의 FDI(외국직접투자)가 이어져 주목받고 있는 투자지
- 한국의 메모리 및 칩 패키징 제조업체인 하나마이크론 또한 최근 박장성에 제2공장을 설립한 바 있으며, 충청남도에서는 오는 12월 초 박장성과의 MOU 체결식 예정
- 박장성 산업단지관리위원회는 최근 럭스웨어ICT베트남(이하 럭스웨어)의 생산시설 증설에 대한 제10차 조정 투자등록증명서를 발행
- 금번의 3.3억 달러 추가투자에 따라 럭스웨어의 총 등록자본금은 5억400만달러로 증가
- 추가투자 이행기간은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12~24개월이며, 공장 증설 예정 장소는 비엠펬(Viet Yen) 현의 꽝쩌우(Quang Chau) 산업단지 내 약 30만 m² 규모의 부지로 알려짐
- 증설이 완료되면 박장성 및 인근 지방 근로자들에게 수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
- 럭스웨어는 애플을 비롯한 다수의 글로벌 전자기업들을 고객사로 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지난 2019년 박장성 투자를 시작으로 베트남에 진출해 지속적으로 생산 용량을 확대해왔으며, 현재 럭스웨어는 꽝쩌우 산업단지와 비엠흥(Viet Trung) 산업단지 2곳에서 생산시설을 운영

관련기사 링크:

<https://vnexpress.net/doi-tac-apple-rot-them-hon-330-trieu-usd-vao-bac-giang-4675095.html>

■ 최근 베트남 시장 수입과일 판매가격의 급락

- 최근 베트남 시장 내 키위, 사과, 석류, 배 등의 수입과일 시장가격이 1킬로그램 당 수만 동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여 2년 전 수입과일 시장가격 고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이전에 없던 낮은 가격대를 형성
- 베트남 현지 언론이 인터뷰한 수입과일 소매 상인에 따르면,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골든 키위의 경우, 3.5 킬로그램 1 상자에 20만 동 / 1킬로그램당 57,000 동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, 이는 전년동기 대비 15% 가량 감소한 수준
- 한편, 튀니지에서 수입된 석류의 경우, 고급과일로 분류되어 2021년 1킬로그램당 250,000 동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던 상품이 현재는 35,000동 ~ 50,000 동 수준으로 소점 대비 5분의 1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짐
- 이러한 베트남 시장 내 수입과일 판매가격의 하락은 뉴질랜드 산 사과, 한국산 배 등 모든 수입과일에 걸쳐서 발생
- 가격 급락의 원인으로는 베트남 소비자 구매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최근 베트남 시장내 수입과일의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
- 이외에도 EVFTA, RCEPT, CP TPP, ACFTA를 비롯한 베트남과 다른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수입과일의 관세 감소, 무관세 적용 등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 또한 원인
-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, 올해 10월 말까지 베트남 시장의 과일 수입에 16억 USD 이상이 지출되었으며, 올해에는 특히 인도, 뉴질랜드, 한국으로부터의 과일 수입액이 품목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최대 62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

관련기사 링크:

<https://vnexpress.net/trai-cay-ngoai-vao-viet-nam-ban-gia-sieu-re-4674986.html>